

장수군, 살기 좋은 곳 '4위'

전국 228개 시군구중...음주·교통사고지수등 낮아

장수군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SBS 데이터저널리즘팀(마부작침)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적존도, 이혼율,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자살률, 스트레스인 지율, 교통사고발생건수 등 8개 지표를 조사한 결과 장수군이 살기 좋은 곳 '힘나는 도시' 4위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수군은 이혼지수와 흡연지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음주지수, 교통사고발생지수, 비만지수, 스트레스인 지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다. 장수군은 지난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유치, 전복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장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끈봉샘 생태관광지 지정, 장수~장계간 국도 확장사업 등 46개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올 상반기새마을조성사업, 과수유통시설현대화사업, 한 국형전통숙박시설 조성, 생생마을만들기 등 2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오지 마을 주민 대상으로 1,0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농기계사업단 운영, 육내 마을방송 시설 구축 등 생활발

차행정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 대다중후군 및 심뇌혈관의 예방 관리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장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장수사람가족화사업 등 군민이 건강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켜왔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수군은 말산업특구지정 등 내륙 최고의 말 중심 지로써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앞선 농업정책과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고른 복지정책 등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며 "6차 산업 활성화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이 더욱 깨끗해진다

2억6천만원 투자 13곳에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 정착과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내 13개소에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재 마을내 설치되어 있는 4구 방식의 땅식 재활용물 수거시설은 외관상 혐오스럽고, 지지부진 상태로 우선 시 수질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등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현재 일부 도시권에 적용하고 있는 클린하우스(Clean

House)를 시범설치하기 위하여 읍면 13개 마을에 설치예산 2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7월까지 해당마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문전 수거방식에서 거점화 수거 방식인 선진형 쓰레기 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쓰레기의 친환경적 관리와 경제적인 수거로 클린진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시 선별 배출을 유도하고 깨끗한 배출장소 관리, 수거처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클린하우스 설치는 10~15㎡의 면적에 강우 시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재활용품별 분리수거함 8개와, 무단투기감시용 CCTV, 악취 탈취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변 청정환경 유지는 물론 쓰레기 수집 운반의 효율화로 청소차 운행거리 및 운행 시간을 단축시켜 행정력 감소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은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 3NO운동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같은 물론 307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의 책임마을 담당제를 운영하여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인식전환도 같이 병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항로 군수는 "쓰레기 3NO운동과 함께 클린하우스 설치로 주민 자율참여에 의한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시켜겠다"며 "이를 통해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클린하우스(Clean House).

진안군, 10월부터 분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

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진안군은 20일 오는 10월부터 개인 정화조 등의 분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분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1997년 이후 20여년 간 인상 없이 동결해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과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분노처리량이 감소돼 분노 수집·운반체계의 폐업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분

노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 관내에는 분노 수집운반업체 2곳이 운영되었으나, 2015년 4월 하수도 보급 확대로 분노 수거량 감소로 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1곳이 폐업하면서 현재 1곳만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0.5원/1인 수수료를 2016년 10월부터 17원/1, 2017년 1월부터 21원/1, 2018년 1월부터는 24원/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2016년 6월 개정된 진안군 하

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의 보호대상자 및 용담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화시설의 관리가 어려워 처리되지 않는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소규모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을 확대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민 보건환경 개선과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삼례·봉동·상관 하수관거 정비

삼례3단계·상관2단계 사업

완주군은 삼례읍, 봉동읍 및 상관면 일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민경강의 수질개선에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삼례3단계와 상관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삼례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5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48억원)을 투자해 삼례읍(해전리, 후정리) 및 봉동읍(구인리, 제내리) 일원 하수관거 26.4km와 배수설비 4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되며, 상관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9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자해 상관면(마치리, 어두, 남관) 일원 하수관거 9.2km와 배

수설비 9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 되면 해당지역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김중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정화조 처리로 인한 악취와 해충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농협 여성책임자 모임 진안예코에듀센터서 힐링캠프

전북농협 여성 책임자 모임인 다사랑회(회장 이남기, 송천센터별지점장) 회원 90여명은 지난 18일 진안예코에듀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지점장, 팀장, 차장 등 여성 책임자들은 농협은행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행복금융을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해설사를 동반한 숲 체험, 도자기 아로마 향초 체험, 심신치유 활동 등 다양한 힐링 체험을 하였으며, 진안 홍삼과 이용, 진안 농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썼다. 이남기 회장은 "힐링캠프를 통해 치유된 마음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9일 현대차 전주공장 마스터스희 회원 및 가족 30여 명은 이산모자원 주변 잡초들로 우거진 울타리를 손질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 마스터스희 봉사활동

완주 이산모자원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 마스터스희는 19일 전북 완주군 소재 자매결연 시설인 이산모자원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마스터스희는 이 회사 내 품질명장, 기능장 등 우수 기능인 70여 명이 함께 공부하고 각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의지할 곳 없는 모자세대 보호시설인 이산모자원과는 지난 2014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회원 및 가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이산모자원 주변 잡초들로 우거진 울타리를 맡김히 손질하는 한편, 시설 안팎 대청소를 실시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마스터스희는 또 회비를 적립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이산모자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용탁자 세트를 구매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산모자원 오세현 원장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가르듯이 품질명장과 기능장들이라 서로 그런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한 맞춤 봉사활동으로 불심양면 많은 도움을 줘오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마스터스희는 자매결연 이후 3년째 이산모자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며, 시설 특성을 고려해 풍선아트를 배워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산림재해 예방 안전점검

산사태취약지역 등

무주군은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 산림조성, 산촌소득담당 공무원들로 점검단을 구성한 군은 이날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과 일도, 산지전용, 벌채, 산림휴양시설 등지에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안전 상태와 민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를 집중 점검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등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완벽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과 더불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 부남면 가담리에서는 마을주민들과 무주군 환경산림과 안전재단과, 부남면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무주군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재해 실제 대피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민일의 상황으로부터 지역을 살리고 실재를 대비한 훈련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학비도 벌고 사회경험도 쌓고'

무주군,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43명 모집

무주군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머무와 인동골과 주요 관광지 등지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3명을 모집(~6월21일 / 무주군청 3층 자치행정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모 중 한 명과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무주군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제외)이며, 선발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2016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재학 대학생이 2명 이상인 세대(단, 1세대 1명만 선발)의 자녀, 지방세 과세 정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등을 우대한다. 무주군 자치행정과 최현식 담당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학비에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행정체험을 통해 건전한 사회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아르바이트가 학생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편, 지역과 군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아르바이트생들은 1차 7월 4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분쇄기 손가락 절단사고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0일 오전 7시 25분경 무주를 당산리 모 건강원 주인 김(남·55세)가 양과 즙을 내리기위해 분쇄기를 이용하던 중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요구조자는 분쇄기 칼날에 긴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도중 갑자기 기계가 돌았으며, 무주119안전

센터 대원들은 사고로 인해 절단된 손가락 두 개를 작업장 내부에서 확보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에 무주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조한백은 "분쇄기 및 절단기 사용 시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 반드시 기계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에 임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

완주군, 장미철 환경오염 불법배출 특별단속 실시

완주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장미철 등 집중호우를 통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개조(4명)를 투입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법령 위반 위반사업장,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해당사업장에 사전에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배출시설 담당자 교육과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번암 황금달맞이 꽃길 관리

장수군 번암면은 여름철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황금달맞이 꽃길 관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방화동가족휴가촌 등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해 황금달맞이꽃 힐링로드를 조성기로 하고 지난 달부터 교통리부터 국포리까지 5km의 꽃길을 조성해왔다. 또한 황금달맞이 꽃 주변 제조작업과 거름주기 등 꽃길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장수의 이미지를 심어줄 방침이다. 정태선 번암면장은 "앞으로도 꽃길 조성과 잡초 제거,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번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읍-여수 둔덕동 주민자치위 방화동 가족휴가림서 우의 다져

장수군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호)는 최근 여수시 둔덕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초청해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장수읍 덕산리에서 번암면 방화동 가족휴가촌까지 산행을 하며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고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박영호 장수읍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 협력관계가 더욱 깊이 다져지길 바라며 장수의 깨끗한 자연에서 힐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 노인학대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7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활성화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노인대상 범죄예방 및 노인학대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실시된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시설이용객 또는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후 확대의심 신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경찰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